

격의 개념과 한국어의 조사

엄정호*

이 논문은 한국어의 격 범주가 존재하는가를 따진 논문이다. 먼저 격의 개념과 기능을 형태론적, 통사론적, 기능적 입장에 따라 살펴 보았다. 한편 터키어의 목적격이 한정성/특정성을 표시하기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한정성/특정성의 개념도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어의 조사 {가}, {를}이 격과 함께 한정성/특정성을 표시하는 것이 유일한 현상은 아니라는 것을 보였다. 또 인구어적인 배경을 가진 격의 정의는 격 표지에 격을 표시하는 것 이외의 기능/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유형론적인 배경을 가진 기능적 격 정의는 격에 구별과 확인 기능을 부여한다는 데 주목하였고, 격조사라고 하여 격만을 표시한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의 {가}와 {를}이 격조사로 분류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아울러 굴절이라는 개념을 통하지 않고도 문법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핵심어: 격, 한정성, 특정성, {가}, {를}

1. 도입

한국어 문법의 이해에서 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다는 것은 굳더더기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 {를} 등 소위 격조사의 기능이 특히 중요하다. 그런데 근자에 {가}와 {를} 등이 격을 나타내지 않으며, {는}, {도} 등과 마찬가지로 보조사 부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남기심(1991)에서 시작되고 목정수(2003, 2009), 고석주(2004) 등이 이어받은 이 논의들을 통해 과연 격이란 무엇

*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인가, 그리고 국어 조사의 기능과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격의 정의와 기능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살펴보고, 다른 언어에서의 사례를 살펴 본 다음, 목정수 등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가}와 {를}을 여전히 격조사로 볼 수 있음을 보이려고 한다.

2. 격의 정의

격의 정의에는 형태의존적인 것, 통사론에 기반을 둔 추상적인 것인 것, 의미론적인 것, 기능적인 것이 있다. 이 중, Fillmore(1968)에서 시작된 격의 의미론적 정의가 이제는 의미역 이론 등으로 실효성이 없게 된 것이라면, 형태론적인 정의와 통사론적 정의 그리고 기능적인 정의만이 주요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격을 형태의존적으로 정의한다고 해서 격 현상/기능을 형태론적 현상 - 곡용의 문제 -로만 파악한다는 것은 아니다. 격의 기능을 통사론적/의미론적으로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격 표지가 외현적으로 드러날 때만 격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형태론적 정의의 출발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고전 한문과 같이 외현적인 격 표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언어나, 영어에서의 명사에서는 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격 표지가 곡용 계열체(paradigm) 상의 일관성을 보여야 격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논자에 의견이 따라 다르므로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격을 통사론적으로 정의할 때는 격 표지의 존재 유무가 격의 존재 유무와 직결되지 않는다. Chomsky(1981)에 따르면 격은 명사가 문장 안에서 가시적이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구조적 형상과 지배 범주의 의미역들과 기능범주에 따라 할당 또는 점검될 뿐이고, 격 표지가 외현적인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격은 모든 언어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격의 문제는 어떤 구조적 형상 아래에서 어떤 격이 할당/점검되는지의 문제로 한정된다.

기능적인 정의는 격 표지가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다른 것이다. 이때의 기능은 주어나 목적어를 표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논항들을 구별 또는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는 의미이다.

격에 대해 논의할 때 위 셋 중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이 글은 세 입장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또 우리는 격의 정의와 기능 그리고 격 표지의 의미를 분리해서 살펴볼 것이다.

먼저 형태의존적 정의부터 살펴본다.¹⁾ 먼저 격은 굴절형태론의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명사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명사와 관련된 굴절형태론은 성(Gender)과 수(Number)의 경우도 있으므로, 이들을 제외한 것이 격이다(Anderson 1994). 격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격 표지 각각에 일정한 기능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주격 표지를 가지는 명사(구)라고 하더라도 항상 주어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또 언어에 따라 특정 구문에서 여격 주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²⁾ 격 표지와 문법 관계 또는 기능이 일대일로 대응되는 언어는 없다. 또 의미역과도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다.³⁾

이런 사정 때문에 격의 정의를 격 표지의 기능/의미과는 별도로 정

1) 그런데 그 전에 용어를 잠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격을 나타내는 형태론적 방식은 어형변화를 이용하는 방법과 접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어형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한 격 실현을 격형태, 접사가 격을 나타내는 것을 격 표지라고 불러 구별하기도 한다(Blake 1994: 2). 이 논문의 목적을 위해서는 이런 구별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격 표지라는 말로 대표하겠다.

한편 Mel'čuk(1986)에 따르면 '격'이라는 용어는 적어도 삼중의 중의성이 있다고 한다.

1. 굴절범주 체계로서의 격 2. 특정한 격 3. 특정한 격의 언어 형식

이 논문에서 이 세 가지 용법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격1 등과 같이 나타내겠다.

2) 아이슬랜드어의 경우가 유명하다.

3) 일대일 대응을 시도한다면 격형태/표지가 다양한 문법관계 또는 의미역에 따라 동음이의어로 분류되게 될 것이다.

의할 필요가 생긴다. Blake(1994)가 격을 ‘종속적 명사가 그 머리어와 가지는 관련성의 유형을 명사에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은 이런 면에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격을 굴절형태론의 범주로 볼 때, 어떤 언어가 격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Mel'čuk(1984)는 격 표지 후보자들 사이의 계열관계 성립여부가 격체계 성립여부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영어의 속격 ‘s’는 계열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격 표지가 아니라고 한다. 또한 그에게 있어 굴절 범주란 출현의 의무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격 표지가 환경에 따라 출현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그런 언어가 있다면, 그 언어는 굴절범주로서의 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격 표지 자체가 없는 언어이다. 이런 엄격성은 한국어나 터키어, 일본어 등을 격1이 없는 언어로 분류하게 할 것이다.⁴⁾⁵⁾ 또한 격 표지는 둘 이상이어야 한다. 동일한 표지가 모든 표면통사 역할을 한다면 그런 표지는 표면통사 역할에 독립적이며, 따라서 격 표지가 아니라는 것이다.⁶⁾ 한편 다른 종류의 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호격 같이 의존성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격2에 포함시킨다. 한국어의 경우 주격과 목적격, 속격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호격의 경우도 인정할 수 있다. Blake(1994)의 정의에서는 호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⁷⁾

그러나 Mel'čuk(1984)와 달리, 격을 굴절형태론의 범주로 보는 많은 논저에서, 격 표지의 의무성을 그리 강조하지 않는다. 여러 논저에서 터키어의 격을 이야기하는데⁸⁾, 터키어는 격 표지의 출현이 한정성 또

4) 엄격한 격의 정의를 따른다고 해도, 격 표지가 환경에 따라 출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언어에서도 격 체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안병희(1966)에서 도입된 부정격 개념이 바로 그것이다.

5) Mel'čuk(1984)는 격은 명사류를 특정 표면통사의 의존적인 구성원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배자인 명사류에 표시가 있는 언어는 격의 전도된 범주를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언어로 이란어와 셈어족의 언어를 지목하고 있다.

6) 한국어의 ‘은/는’, ‘도’ 같은 형태가 이에 해당한다.

7) 그러나 격분류에서는 호격을 인정하고 있다.

는 특정성의 의미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엄격하게 굴절적 정의를 취하지 않고 의존성의 관점에서 격을 정의하는 Blake(1994)에서는 호격에 대해 모순적 처리를 한다.⁹⁾

굴절의 개념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지금까지 격의 문제라고 부르던 많은 현상/형태들이 배제된다. 의존성의 개념을 엄격하게 정의하여도 지금까지 격이라고 부르던 형태가 배제된다. 우리는 격의 정의에 대해 딜레마에 빠져 있다.¹⁰⁾

이상의 논의에서 보듯이 격을 형태의존적 문제라고 할 때 모든 언어에 대해, 모든 논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의는 찾기 힘들다. 그렇다면, 격에 대한 완전한 정의를 찾을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기능을 하는 것을 격 표지라고 부르자고 말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 이런저런 기능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논의하겠다.

격을 생성 문법적 전통 아래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위의 형태론적 정의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 격은 명사구가 가시적이 되기 위해 (또는 해석되기 위해) 부여되어야 조건이다. 격은 보편적인 현상이어서, 격 표지가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아님든 명사구라면 격이 할당되어야 한다. 격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구조적 격이며, 다른 하나는 내재격이다.¹¹⁾ 구조격은 놓여 있는 구조적 위치에 따라 어떤 격이 나타나게 되는지가 결정되는 것으로 의미역과는 큰 관계를 맺지 않는다. 내재격은 반면 특정 의미역 관계에 민감하다.

구조격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는 이론적 변화에 따라 설명방식도 달라졌다. 초기의 지배결속 이론에서는 굴절소와 타동사 핵의 지배에 의해

8) Lyons(1968), Enc(1991), Johanson(2006) 참조.

9) Blake(1994)에 따르면, Hjelmslev(1935: 4)에서는 호격을 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10) 상황이 이러하므로 격 역시 원형성과 가족유사성에 의해 범주화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범주화가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 즉 한국어에서 소위 격조사의 범주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다.

11) 구조격과 내재격의 구분은 굳이 Chomsky(1981)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있던 구별이다. Jespersen(1933)은 문법격과 의미격이라 하여 같은 구별을 하였다.

격이 할당되었다. 그 후의 최소주의 이론의 초기에는 명사구가 가진 격 자질이 일치소에 의해, 후기에는 경동사 v와 굴절소에 의해 점검되는 관계가 되었다. 이런 이론적 변화 가운데에서도 구조적 관계에 의해 격이 결정된다는 주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다만 구조적 관계의 개념이 상대적인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다(Ura 2001 참조).

격이 형태적 실현과 관계 없이 언어 보편적인 현상이고, 구조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성문법의 주장은 굴절의 개념이나 의존성의 개념에 얼마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형태 의존적 정의가 보이는 문제점에서 면제된다. 그러나 생성문법적 전통 아래의 격에 대한 주장은 내재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문제에 부딪힌다. 생성문법적 전통의 문헌에서 내재격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언어마다 상이한 내재격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내재격에는 어떤 보편적 특성이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다.¹²⁾ 원만한 격이론은 내재'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격의 기능

격의 기능은 무엇일까, 격이라고 하는 굴절 범주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은 오래 전부터 격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의 논란거리였다. 격이 주어나 목적어 같은 문법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견해는 직관적이기도 해서 쉽게 채택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였지만, 너무 많은 예외가 여러 언어에서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다. 문법 관계와 격을 동일시하는 것에는 분명 많은 문제가 있다. 아울러 처격 등의 내재격을 설명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이제 몇몇 학자의 논의를 살펴 보면서

12) Ura(2001)에 따르면, 최소주의 아래에서 수많은 구조격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there로 시작하는 허사구문에서의 일치 문제와, PRO의 영격(null case) 점검자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고 한다. 한편 PRO의 영격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Martin(2001)에 보인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지 알아 보기로 한다.

한편 굴절 범주로서의 격을 생각할 때에 인도유럽어의 전치사가 드러내는 개념이 격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다시 말하면 굴절이라는 장치를 통하지 않고서도 같은 개념이 표현될 수단이 있고, 격을 굴절범주의 하나로 엄격히 정의하면 같은 기능이 중복적인 방법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Anderson 1994).

Blake(1994)의 격에 대한 정의, 즉 ‘종속적 명사가 그 머리어와 가지는 관련성의 유형을 명사에 표시하는 것’에는 격의 기능도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는 또 한 가지 문법 기능은 한 가지 격과만 관계되지 않으며, 하나의 격이 하나의 문법 기능과만 관련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격과 문법 기능 사이의 관계가 일대일이 아님도 지적하고 있다.

Brandner & Zinsmeister(2003)에 따르면, 전통 문법에서 격은, 격이 특정한 의미론적 정보를 나타낸다는 전제 하에, 논항 기능의 (형태론적) 표현이라고 하며, 이것은 특히 핀란드어의 처격이나 슬라브 제어의 도구격에서 특히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곧바로 러시아어에서 속격과 대격의 분포를 예로 들면서 격을 의미관계 영역에서만 다룰 수도 없다고 말한다. 러시아어에서 속격과 대격의 분포는 다른 요소(예, 부정)와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이러한 ‘의미’ 격들도 의미역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은 또 의미역과 격 사이에 거친 대응이 있지만(주격-동작주, 대격-피동체, 여격-수혜주 또는 경험주 등) 이러한 동형(isomorphic) 짝짓기 사이에 개재하는 특정 언어문법의 다른 요소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 사이의 부조화 역시 격이론이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하나라고 주장한다.¹³⁾

이들은 또 격의 핵심 기능은 논항 명사구의 문법적/통사적 기능과 의미역 관계를 매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의미역 관계는 기본적으로 어휘적 의미의 동사에 의해 결정되고, 의미부와 관련되는 것으로, 격의

13) 이런 문제의 해결책 중의 하나가 격과 의미역 관계의 완전한 분리이다. ‘격 이론’과 ‘의미역 이론’을 독립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표면적 실현은 진짜 형태-통사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격이론은 의미 차원과 형태-통사 차원이 어떻게 상호간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련되는지 기술(가능하면 설명)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매개 관계는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다.

Ura(2001)은 격은 명사류의 형태론적 형식과 그들이 절 안에서 가지고 있는 해석적 관계 사이의 추상적 관계를 표현하는 총칭 표현, 즉, 형태와 의미 사이를 매개하는 문법 범주라고 한다. 이런 식의 매개는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격이론이 복잡하게 전개된다.

Chomsky(1981)은 문법 기능(GF)과 문법 관계(GR)를 구분한다. 문법 기능이란, 양화사 부동(quantifier floating), 내포절 주어 통제, 주어 지향 재귀사 결속, 일치 등을 야기하는 능력을 말하며, 문법 관계란 주어나 목적어 등을 말한다. 주어나 목적어 등의 논항은 문법 기능이 집합된 것으로 정의된다. Chomsky(1981)은 특정 문법 기능의 집합으로 간주되는 문법 관계 역시 S-구조에서 구조적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제안했다. 여기서 요점은 지배·결속(GB) 이론에서 격과 문법 관계는 구조적 관계를 매개로 하여 상호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법 기능과 문법 관계는 언어마다 다르다. 생성문법 이론의 변천은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¹⁴⁾

격을 형식적으로 정의하고, 문법 관계 또는 의미역과 연관시키는 격이론은 크든 작든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나의 격 형식이 하나의 기능/관계만을 표현하는 일이 오히려 드문 경우이기 때문이다. Jespersen(1933)은 “아주 먼 과거까지 소급해도 단 하나만의 명확한 기능을 가진 격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어느 언어에서든지 격은 서로 다른 목적에 쓰였고, 이들 간의 경계는 결코 분명하지 않다.”고 하면서, “격은 일반적으로 언어의 가장 비합리적인 부분 중의 하나”라고까지 주장하였다.¹⁵⁾

14) 생성문법적 격이론의 변천사에 대해서는 Ura(2001), Butt(2006), 최기용(2009) 참조.

15) 언어의 발달 과정에서 격 체계가 변동되는 일도 있다. Kulikov(2006)에 따르면, 고인도아리아어는 8격 체계였는데, 중인도아리아어에서는 직격(주격과 대격의

지금까지 살펴본 격의 정의나 기능에 대한 설명은 주로 굴절어에서의 현상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계열체 기반의 격 정의가 특히 격 정의의 굴절어 기반적 성격을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유형의 언어에 대해서도 격의 기능과 정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아온 것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접근은 기능-유형론자들에 의해 마련되었다.

기능-유형론자들 문헌에서 보이는 격에 대한 논의의 특징은 격을 그리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Whaley(1997/2008)에는 격의 정의가 아예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송재정(2001/2009: 187)에서는 절 안의 명사구들의 의미 역할이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론적 형태(예, 접사) 또는 기능적 단어(예, 부치사)를 격 표지라고 부른다는 정도로 설명되어 있다.¹⁶⁾ 그러나 격의 기능에 대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다. 격 표지의 기능을 확인(identifying) 또는 구별(distinguishing)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¹⁷⁾

Comrie(1977)에서 주장되기 시작한 격 표지의 확인 기능은 명사 논항에 관한 특정한 의미론/화용론적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대격 표지는 단순히 주어와 대립하여 목적어임을 확인하려는 순수 통사적 목적이 아니라, 문장이 묘사하고 있는 사건에서 명사 논항이 피동체(patient)역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능격은 행위자(agent)임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 등이다.

한편 Hopper & Thompson(1980)에서 주장된 구별 기능은 핵심 격

함류형)과 사격(고인도아리아어의 속격 출신)만 남았다고 한다.

16) 여기서 주목할 것 하나는 굴절이나 교착이 아닌 형태소, 즉 부치사도 격 표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정의 아래에서 격의 굴절적 성격은 중요하지 않다. 한편 부치사나 비슷한 의미의 준-보조적 부사류가 의미론적·형태음소론적 변화의 결과 격접미사로 변하는 경우도 있다. 자세한 것은 Kulikov(2006) 참조.

17) 학자마다 약간 용어의 차이가 있다. de Hoop & Malchukov(2008)에서는 확인(identifying)과 구별(distinguish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송재정(2001/2009)와 Ness(2006)에서는 지표화(indexing)과 차별(discriminatory)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표지(주격과 대격, 또는 능격과 절대격)가 하는 주된 기능이 타동사절에서 논항들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절의 논항 명사구를 각각의 문법적 기능에 맞춰 확인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견해에서는 개별 논항의 의미론적 속성은 이런 확인에 영향을 주는 범위에서만 관여적이다.

이 두 가지 기능은 따로따로 주장되었고, 대립되는 견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이 두 견해 사이의 조화가 시도되고 있다. 최척성 이론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 본 de Hoop & Malchukov(2008), de Swart(2006) 등에서는 이들을 제약의 관점에서 통합시킨다.

de Hoop & Malchukov(2008)에 따르면, 격 형태론은 의미적 또는 화용적 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미격과 마찬가지로 어휘격(내재격, 사격)이 확인 전략의 분명한 예다. 그러나 문법격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의미적/의미역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직접 목적어 자리의 구조적 대격은 피동성(patientive)을 확인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확인은 단일 제약이 아니라 제약군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한다.

구별전략은 타동절에서 두 핵심 논항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목적을 위해 격은 타동사절에서도 하나의 논항에만 표지될 수 있다고 한다. 구별의 관점에서 두 논항에 다 격 표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주격-대격 체계에서 목적어만이 대격 표지되며, 주어는 무표지로 나오는 수가 많다. 이런 경우에도 목적어가 유정성 위계나 한정성 측면에서 주어와 같거나 높을 때에 주로 대격 표지가 된다.¹⁸⁾ 즉, 격 표지는 중의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또 능격-절대격 체계에서는 능격만 격이 표지되고, 절대격은 무표지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de Hoop & Malchukov 2008).

확인 기능에 기초를 둔 격 체계는 따라서 격형태론이 복잡할 것이다.

18) 주어는 한정적인 것이, 목적어는 비한정적인 것이 무표적이다. 이것이 역전될 때 격 표지가 된다.

또 격형태론이 복잡한 언어에서는 주격과 대격의 구별이 다른 비용 없이 주어질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많은 언어에서 격 표시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별과 확인의 기능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다.

이들의 견해를 통해 볼 때, 주격과 대격은 구별의 기능이, 여타의 격들은 확인의 기능이 강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¹⁹⁾

4. 격과 한정성/특정성

바로 앞에서 격이 표시되는 조건 중 하나가 한정성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았다. 의미론적/화용론적 개념인 한정성 또는 특정성이 격 표시와 결부되어 있다는 뜻이다. 먼저 한정성과 특정성의 관계에 대해 잠시 살펴 보고, 다음에 이 한정성/특정성이 격 표시와 결부되는 양상을 살펴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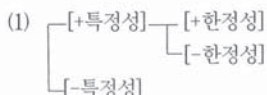
한정성은 발화에서 표현된 명사구가 발화맥락 또는 담화세계 안에서 유일물이어서, 청자가 명사구의 지시물을 식별할 수 있으리라는 화자의 가정이 명사구에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발화 맥락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명사구는 보통 한정성을 띠지 않는다. 즉, 한정성은 구정보와 관련이 있다.

특정성은 명사구의 지시 대상이 특정되어 있을 때 명사구가 가지게 되는 특성이다. 화자나 청자가 그 명사구에 지시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청자가 그 지시 대상을 식별할 수 있으리라는 가정은 동반되지 않는다. 비특정성은 명사구의 지시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것으로, 자의적인 지시를 가지는 경우에 명사구가 가지는 특성이다.²⁰⁾

19) 이 입장에서는 무표지된 논항은 격이 결여된 것으로 본다.

20) Enç(1991), Johanson(2006) 참조,

한정성이나 특정성은 모두 명사구의 지시성과 관계가 있다. 모든 한정적 명사구는 특정적이지만 특정성을 가진 명사구 중에는 비한정적인 것도 있다. 비한정적이지만 특정적인 명사구는 발화 맥락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명사구가 보통 가지게 되는 특성으로, 신정보와 관련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격 표지가 한정성/특정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장 주목받은 언어는 터키어이다. Lyons(1968)에서는 터키어의 대격이 명사구가 한정적일 때만 주격과 구별되어 표시된다고 하였다.²¹⁾ 그러나 Enç(1991)에서는 한정성이 아니라 특정성 여부에 따라 대격 표지가 나타난다고 한다.

- (2) a. Ali bir piyano-yu kirilamak istiyor
 Ali one piano-Acc to-rent wants
 b. Ali bir piyano kirilamak istiyor
 Ali one piano to-rent wants

여기서 bir는 그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비한정적인 명사구에 붙은 표지인데, (2a)에서는 대격 표지가 나타났으므로, 한정성이 아니라 특정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Johanson(2006)은 터키어의 대격 표지가 특정성 측면에서 제한된 역할만을 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대격 표지가 붙은 직접목적어가 특정성을 표현하기는 하지만, 서술어 바로 앞에 나타나는 경우에만 그렇다는 것이다. 다른 통사 위치에서는 특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대격

21) Lyons(1968)에 따르면, 핀란드어에서는 단수 명사가 한정적이라면 주격 표지를 가질 수 있고, 비한정적이라면 부분격 또는 속격으로 표지된다고 한다.

표지가 나타나야 한다고 한다. 이 사실은 역으로 터키어의 대격 표지가 대격을 나타내는 것이 우선적인 기능임을 말해 준다.

터키어의 사례를 통해, 격 표지가 있는 언어의 경우도, 그 출현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화용론적 필요성에 의해 표지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격 표지가 격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화용론적 가치도 가지고 있을 수 있음도 알 수 있다.

5. 목정수(2003, 2009)와 고석주(2004)의 논의

목정수(2003, 2009)와 고석주(2004)는 조사 {가}와 {를}이 격을 표시한다는 한국어 문법의 오랜 가정에 이의를 제기한 업적으로 주목할 만하다. 이 두 업적은 논의의 다양함과 치밀함으로 설득력 있는 논지를 펼치고 있다. 아울러 두 업적은 상당한 공통점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 두 논문의 주요 논거가 조사의 서열 관계라는 점이 그렇고, 이 두 조사의 의미/기능에 대한 파악도 그러하다. 물론 결론에 상당한 차이도 있어서 목정수(2003, 2009)의 경우 위의 두 조사에 한정사의 기능을 부여하며, 고석주(2004)의 경우는 ‘선택 지정’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선택 지정’이란 ‘지정’이라는 점에서 한정성의 측면에서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이 장에서는 목정수(2003, 2009)와 고석주(2004)의 논의를 소개하고, 이 두 논문의 한계점을 지적해 보이겠다. 목정수(2009)에서는 {의}의 한정사적 성격만을 논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목정수(2003) 위주로 살펴 보겠다.

목정수(2003: 138)은 격을 통사적 관계나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국어 중심의 ‘곡용어미’ 개념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는 조사 {가}와 {를}이 없이도 문법적 기능을 나타낼 수 있으며, 때로는 없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므로 이들이 격을 표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²²⁾ 목정수(2003)의 예

문을 가져온다.

(3) 너 떠나면 나 어떻게?

(4) 너 그 뉘 밥 먹었니?(목정수2003: 100)

확실히 위 두 예문의 밑줄 그은 명사구에 {가}나 {를}이 통합되면 어색하거나 의미의 변동이 온다.

목정수에 따르면 {가}와 {를}의 본질은 한정사(=관사)이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논거는 {가}와 {를}이 조사통합체에서 {는}, {도}와 같은 서열이라는 것이다.²³⁾ 잘 알려진대로 {는}과 {도}는 한정성을 표시하는 조사이므로, 이들과 같은 서열을 차지하여 서로 계열체를 이루는 {가}와 {를}도 역시 한정성 여부를 표시하는 조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네 조사가 한정성/특정성의 어떤 특성을 나누어 가지는지가 문제가 된다. 목정수(2003)에서는 {는}을 [+한정성]을, {가}는 [-한정성, +특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는}을 정관사라고도 부르고 있으며(목정수2003: 186), {가}에는 초점성과 비한정성, 특정성을, {는}에는 화제성과 한정성, 총칭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목정수2003: 187). 이런 주장 자체는 기존의 논의에서도 충분히 지적된 것이어서 새로운 것은 없다. 목정수의 논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점은 {가}와 {를}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하여 목정수(2003: 166)에서는, {가}는 ‘주체지향적, 화자지향적, 여기·지금 지향적, 유정 지향적’ 운동을 하는 역학체이며, {를}은 ‘객체지향적, 청자지향적, 과거·미래/저기 지향적, 무정 지향적’ 운동을 하는 역학체라고 답한다.²⁴⁾

그리하여 목정수(2003: 189)의 한정사 체계는 거시적으로는 {가}와

22) 그에 따르면 한국어의 격은 어순으로 나타나며 무표적인 {Ø1, Ø2}로 실현된다고 한다(105쪽).

23) 조사통합의 서열에 대해서는 남윤진(2000), 유하라(2005) 참조.

24) 여기서 ‘역학체’란 그가 인용한 Guillaume(1919)의 용어이다. 본고에서는 이 논의를 검토할 여유가 없으므로, 이 용어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지 않겠다.

{를}이 한 묶음, {는}과 {도}가 한 묶음이며, {가, 를} 묶음은 주체 지향과 객체 지향의 대립체계로²⁵⁾, {는, 도} 묶음은, 순서지어진 체계로 재구성된다.²⁶⁾ 그렇다면 {가, 를}은 비한정성, {는, 도}는 한정성을 나타내는 조사가 될 것이다.²⁷⁾

{가}와 {를}이 비한정성, {는}과 {도}가 한정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는 결론이다. 목정수(2003)에서 새로운 점이라고 하면, {가}와 {를}이 대립한다는 것, {는}과 {도}는 순서지어진다는 것이다. 대립의 내용은 ‘주체 지향’과 ‘객체 지향’이며, 순서의 내용은 불투명하다. {가}가 ‘주체지향’이라고 하더라도 주격이라는 격의 표지가 아닌 것은 그가 상정한 격의 정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5) 이 둘은 초점·배제를 나타내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26) 목정수(2003)에 따르면 {는}은 ‘화제·대조’를 나타내며, {도}는 ‘양보·부가’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러나 {는}과 {도}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방식으로 순서지어지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없다. ‘양보·부가’의 의미가 한정성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아쉽다.

27) 한편 목정수(2003: 183-4)에서는 {가}와 {는}을 비교하면서, 총칭성과 특정성이 {가}와 {는}에 의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근거가 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i) ㄱ. [?]쥐는 도심지역에 증식하고 있다.

ㄴ. 쥐가 도심지역에 증식하고 있다.

(ii) ㄱ. 쥐는 몰릴 때 공격한다.

ㄴ. [?]쥐가 몰릴 때 공격한다.

즉, ‘증식하다’가 서술어일 때는 총칭적 해석 측면에서 무표적인 ‘쥐는’이 ‘쥐가’에 비해 어색하며, ‘공격하다’가 서술어일 때는 그 반대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어의 총칭성과 특정성은 서술어와의 결합에 의해 이차적으로 유도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 결론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으나, 위 예의 해석에는 문제가 있다. (i)이 진행형 구문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총칭 표현이 진행형일 수는 없는 것이므로 (i)은 총칭표현이 아니다. 이 때문에 (i-ㄱ)이 어색한 표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i)은 특정 집단의 쥐가 도심지역에서 증식하고 있다는 사건을 표현한 문장으로 해석된다. 다음의 예에서는 ‘증식하다’라는 서술어가 나타났음에도 {는}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ii) 쥐는 도심 지역에서 증식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체/객체 지향적’, ‘유정/무정 지향적’인 성격은 바로 주어와 목적어가 나타내는 성격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즉 {가}는 주어의 일반적 성격과 일치하며, {를}은 목적어의 일반적 성격과 일치한다. 따라서 {가}와 {를}이 한정성 측면에서 보여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가}는 주어에, {를}은 목적어에 전형적으로 통합된다. 그러나 이런 분포적 경향을 ‘격’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것이 목정수(2003)의 결론인 것으로 보인다.

고석주(2004) 역시 {가}와 {를}이 격을 나타내는 조사가 아니라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양태조사²⁸⁾라고 주장한다. {가}와 {를}이 격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 단어의 어형변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구나 절에도 통합되므로 엄격하게 굴절적이지 않고, 문법적 관계를 배타적으로 드러내지도 않으며(고석주 2004: 31), 쉽게 생략되거나 다른 조사와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따라서 국어의 격 범주는 필요한 근거가 없다고 한다(고석주 2004: 51).²⁹⁾

고석주(2004: 150-2)는 다음의 예를 근거로 {가}에 ‘선택 지정’의 의미를 부여한다. 먼저 부정 대명사 ‘아무’에 {가}가 통합될 수 없다는 것이다.

(5) 요즘은 아무(가, ∅)나 대학에 간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부정(不定)’이라는 ‘아무’의 의미와 {가}의 의미가 모순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부정’과 대립되는 의미인 ‘지정’이 {가}의 의미라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 예가 가능하므로 단순한 지정이 아니라 ‘선택 지정’이 {가}의 의미가 된다고 한다.

(6) 내가 인사를 청했는데도 너는 아무 대답-∅/이/도/은 없었어.³⁰⁾

28) 여기서 ‘양태’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양태(modality)’의 의미가 최대한 확장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9) 이 절에서 목정수(2003)과 다르다. 주 22)참조.

30) 이하 고석주(2004)에 대한 논의에서 문법성의 판단은 고석주(2004)의 것이다.

이 예는 선행절로 표현된 행위에 의해서 예상할 수 있는 ‘여러 반응들 중의 하나인 대답이 어떤 특정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며, 이를 통해 ‘여러 개체들 중의 하나에 대한 지정’, 즉 ‘선택 지정’이 {가}의 의미라는 것이다.

보통 부정대명사의 용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의문대명사 ‘누구, 무엇’은 {가}가 통합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정’이 아니라 화자가 청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대상이나 무엇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대상을 ‘선택 지정’하는 것이라 한다(고석주 2004: 168).³¹⁾ (7)이 이 설명의 근거이다.

(7) ㄱ. 지금 밖에 누(구){가, ^{??}∅} 찾아왔다.

ㄴ. 이 안에 무엇(이, ^{??}∅) 들어 있다.

{가}가 ‘선택 지정’의 의미를 가지는 또 다른 근거는 발화 상황에서 유일한 개체가 주어 논항일 때 이 조사가 사용될 수 없는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한다(고석주 2004: 174).

(8) 이거-∅/*가/는 얼마예요?

{를}의 경우 역시 ‘아무’와 통합될 수 없다는 것이 ‘목적격 표지’가 될 수 없으며, {가}와 마찬가지로 ‘선택 지정’의 의미를 가진다는 근거이다.

(9) (영이는 요즘 누구를 만나?)

ㄱ. 영이는 요즘 아무(*를, ∅)-나 만나.

ㄴ. 영이는 요즘 아무(*를, *∅) 만나.

31) 화자가 청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대상이나 무엇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대상이 [-한정성]을 가지는 대상이다. 한정성의 측면에서 고석주(2004)와 목정수(2003)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를}이 {가}와 다른 점은 ‘대상’을 지정한다는 점이며, 그 대상이 단순히 ‘행위의 대상’이 아니라 행위의 ‘도달점’을 의미한다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를}은 ‘행위의 도달점 선택 지정’의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다음이 그 근거이다(고석주 2004: 241).

(10) 한 선비가 산길(*에, *에-를, 로, *을) 이웃 마을(에, 에-를, 을) 가다가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만났다.

고석주(2004)의 논의는 결과적으로 {가}와 {를}이 ‘선택 지정’의 의미를 공유하지만, {를}이 행위와 관련된 세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구분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³²⁾

목정수(2003)과 고석주(2004)는 공히 {가}와 {를}이 {는}, {도}와는 구분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 {가}와 {를}이 서로 차이 있는데, 그 차이가 바로 주어성/목적어성과 밀접하다는 점 역시 인정한다. 다만 그 특성을 격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격의 정의를 좀더 넓게 이해해 볼 수는 없을까. 이제, 이러한 {가}와 {를}이 보여주는 이런 특성을 ‘격’으로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다.

32) 고석주(2004)에 대하여 최기용(2009: 30-40)에 상세한 비판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두 가지만 지적하겠다.

첫 번째는 개념상의 문제이다. {가}가 ‘선택 지정’이고 {를}이 ‘행위의 도달점 선택 지정’이라면, {가}의 분포가 {를}의 분포를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와 {를}이 교체될 수 있는 환경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예의 해석 문제이다. 고석주(2004: 227)에 따르면, 다음 예에서 {를}이 사용되어 어색한 것은 선행 발화에서 언급된 대상이 후행 문장에서 다시 언급될 때는 당연히 유일물이어서 선택될 필요가 없는데 다시 선택 지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i) 내가 여기 있던 파자 먹었어?

ㄱ. 응, 내가 (그 파자-∅) 먹었어/ 응, 그 파자-∅ 먹었어.

ㄴ. ^{??}응, 내가 그 파자-를 먹었어/ ^{??}응, 그 파자-를 내가 먹었어.

그런데, 위 예의 ‘나’ 역시 유일하게 대답의 대상이 되어 선택될 필요가 없는데도 {가}가 통합되어 자연스럽다. 고석주(2004)의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해명하여야 할 것이다

6. 다시 격조사로

유형론의 연구에서 문제가 되는 이론적 가정의 하나는 어떤 문법적 현상이 언어들 사이에서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어의 피동과 영어의 피동은 서로 동일한 현상인가, 관계절은 또 어떤가 등이 문제가 된다는 뜻이다. 즉, 언어 간에 나타나는 같은 문법적 현상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송재정(2001/2009)에 따르면 범언어적 식별의 문제를 다루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³³⁾ 한 가지는 순수하게 형태적 또는 구조적 기준을 따르는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문법적 현상의 기능적인 정의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형태적 기준은 단일 언어의 구조적 체계 내적인 문제여서 유형론적 연구에 적당하지 않고, 구조적 기준은 언어마다의 구조적 차이가 너무 커서 범언어적 식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송재정 2001/2009: 32).

우리가 격의 개념을 구조적이나 형태적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이해하고, 격의 기능을 논항의 구별과 확인이라고 본다면, 인구어의 굴절 개념과 상관 없이 한국어에도 격 범주를 인정할 수 있다. 한국어에 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한 목정수(2003, 2009)와 고석주(2004)에서도 {가}와 {를}이 구별/대립된다고 보고 있으니, 현재까지 이에 대한 반론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들이 한정성/특정성 여부를 표시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한정성/특정성 여부를 표시한다는 사실이 구별의 기능, 즉 격 기능도 한다는 사실을 배제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³⁴⁾

그렇다면 격조사에 고유한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할까? 목정수(2003, 2009)와 고석주(2004)에서는 격조사가 격을 표시한다고 한다면, 격조사 자체에 고유한 의미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가}나 {를}에는 의미가 있으므로 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과는 대극적인 입

33) 송재정(2001/2009)에 따르면, 이 구분은 Stassen(1985)에서 시도한 것이라고 한다.

34) 실제로 터키어에서 한국어와 유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 보았다.

장인 최기용(2009: 38-39)에서도 {가}와 {를} 자체는 격을 표시하는 기능만을 하지 고유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고 한다. {가}와 {를}이 쓰여 특정성/한정성 또는 초점 등과 같은 해석을 가지는 것은 김용하(1999)의 격 실현 조건에 대한 제안 (11)과 Chomsky(2001)의 INT 제안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³⁵⁾

(11) ㄱ. 명사구가 현시적 이동을 하는 경우 명사구의 격은 형태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ㄴ. 명사구가 제자리에 있는 경우 명사구 격의 실현은 수의적이다.³⁶⁾

즉, {가}와 {를}이 통합된 명사구가 초점이나 특정성을 드러낼 때는 이동된 경우이며, 그렇지 않을 때는 제자리에 있는 경우라는 것이다.

또 김용하(1999: 279)에 따르면, (12)의 경우는 제시어 구문으로, 목적어가 뒤섞여진 문장이 아니라고 한다.

(12) 그 책 둘리가 읽는다.

(12' ㄱ)에서 보듯이 재현대명사(resumptive pronoun)이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며, (12)의 목적어 자리에는 (12' ㄴ)처럼 영대명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12') ㄱ. 그 책, 둘리가 그걸 읽는다.

ㄴ. 그 책, 둘리가 ∅ 그걸 읽는다.

그러나 최기용(2009)와 김용하(1999)에 공히 다음 예에서의 {가}와 {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하고 있지 않다.

35) INT란 신정보, 특정성/한정성, 초점 등의 의미론적/화용론적 속성으로, 이동의 결과로 생긴 형상/구성에서 해석되는 것이다.

36) 김용하(1999)의 주장은 명사구가 제자리에 있는 경우는 항상 격이 형태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0)은 최기용(2009)가 수정한 내용이다.

(13) ㄱ. 빨리를 가져라.

ㄴ. 아무리 보아도 마음에 들지가/를 않는군요.

ㄷ. 우선 먹어를 보아라.

(13)의 예들은 남기심·고영근(1985/1993: 105)의 예로, {가}와 {를}의 보조사적 용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다. 이 예들은 부사나 용언의 활용형 뒤에 {가}나 {를}이 통합된 형식으로, NP 또는 DP의 이동으로 격조사 생략과 {가}와 {를}의 출현 환경 차이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무력화시킨다.³⁷⁾ 이 예에서 {가}와 {를}이 통합된 형식과 그렇지 않은 형식 사이에는 분명한 의미의 차이가 있다.

문제는 이제 보조사적 용법과 격조사적 용법의 {가}와 {를}을 동음이의적인 것으로 처리하느냐 다의적인 것으로 이해하느냐이다. 동음이의적인 것으로 처리하면 문제는 간단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직관과 배치된다. 또한 이 경우의 {가}와 {를}의 분포 역시 상당 부분 형상성을 통해 기술할 수 있으며 그 분포가 격조사로서의 용법과 겹친다는 사실 역시 무시하게 된다.³⁸⁾

{가}와 {를}이 고유한 의미를 가지면서도 격을 표시한다는 사실은 본고에서의 격에 대한 이해에서는 무리 없이 통합될 수 있다. 구별과 확인이 격의 기능이라면 {가}와 {를}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은 또한 구별을 위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그 의미의 확대는 명사구가 아닌 성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³⁹⁾ 이런 입장은 또 {가}와 {를}이 격조사로도, 보조사로도 분류되는 혼란 또한 피할 수 있어서 한국어의 문법 기술을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37) 형식적인 기제를 사용하여 격을 설명하는 논의들이 다 마찬가지로의 문제에 부딪힌다. 이때 격조사의 보조사적 용법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의견 차이가 있을 뿐이다.

38) 지배결속이론의 용어로 VP의 영역 안에 있는 성분에 {를}이, 그 외의 성분에 {가}가 할당된다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강영세(1986) 참조.

39) {가}와 {를}의 의미, 특히 {를}의 의미에 대한 연구는 일일이 매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쌓여 있다. {가}와 {를}의 의미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그리고 본고에서의 관점에 따른 이해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7. 결론

본고는 지금까지 격의 정의와 기능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살펴 보고, {가}와 {를}이 격조사가 아니라는 견해를 검토하면서, 기능적으로 격을 이해한다면 이 조사들 역시 여전히 격조사로 분류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논의 과정은 계열체를 통한 굴절의 개념이 문법 범주 이해에 결정적이지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인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한국어 문법은 굴절어에서 기원한 굴절과 계열체의 개념에 의존하여 기술되어 왔다. 굴절과 계열체의 틀에 교착어인 한국어가 잘 들어맞지 않을 때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안병희(1966)의 부정격 역시 한국어의 격이라고 하는 문법 범주가 계열체 개념에서 보이는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이며, 시제에 대한 일부 문법 기술에서, 그리고 목정수(2003)에서 보이는 수많은 영형태소의 설정 역시 문법 범주는 계열체의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관념을 고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법 범주 설정에 계열체의 개념이 과연 필수불가결하기만 한 것일까, 계열체를 상정하지 않은 문법 범주의 설정은 불가능한 것일까를 고민할 필요는 없을까? 임홍빈(1997)이 보여준 고민을 이런 면에서 다시 음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영세(1986), *Korean Syntax and Universal Grammar*, Harvard대학교 박사논문.
 고석주(2004), 《현대 한국어 조사의 연구 I -'격' 개념과 조사 '-와'와 '-를'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사
 김동식(1996), 현대국어 조사의 분류에 대한 연구, 《한신논문집》 13, 한신대학교, 105-142.
 김용하(1999), 《한국어 격과 어순의 최소주의 문법》, 한국문화사

- 김원경(2009), 《한국어의 격》, 박문사
- 김의수(2006), 《한국어의 격과 의미역: 명사구의 문법기능 획득론》, 태학사
- 남기심(1991), 국어의 격과 격조사에 대하여, 《겨레문화》 5
- 남기심·고영근(1985/1993), 《표준국어문법론》 개정판, 탑출판사
- 남윤진(2000), 《현대국어의 조사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 태학사
- 류구상 외(2001), 《한국어의 목적어》, 월인
- 목정수(2003), 《한국어문법론》, 월인
- 목정수(2009), 《한국어, 문법 그리고 사유》, 태학사
- 성기철(1994ㄱ), 주격조사 ‘-가’의 의미, 《선청어문》 22, 서울대학교, 277-302.
- 성기철(1994ㄴ), 격조사 ‘-를’의 의미, 《한국어교육》 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1-50.
- 송재정(2001/2009), *Linguistic Typology: Morphology and Syntax*, 김기혁 역 언 어유형론, 보고서
- 안병희(1966), 부정격의 정립을 위하여, 《동아문화》 6, 서울대학교, 222-223.
- 우형식(1996), 《국어 타동구문 연구》, 박이정
- 우형식(2002), 《국어문장성분 분류의 역사적 연구》, 세종출판사
- 유하라(2005), 《현대국어 조사의 배열 양상》,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 이선희(2004), 《국어의 조사와 의미역 -조사 {-를}과 논항 실현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사
- 이정훈(2004), 《국어의 문법형식과 통사구조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 이호승(2006), 격조사 없는 명사구의 격 문제에 대하여, 《어문학》 93, 어문학회, 139-159.
- 임동훈(2004), 한국어 조사의 하위 부류와 결합 유형, 《국어학》 43, 국어학회, 119-154.
- 임흥빈(1979), {을/를} 조사의 의미와 통사, 《한국어논총》 2, 국민대학교, 91-130.
- 임흥빈(1997), 국어 굴절의 원리적 성격과 재구조화, 《관악어문연구》 22, 서울대학교, 93-163.
- 임흥빈(2007), 《한국어의 주제와 통사 분석: 주제 개념의 새로운 전개》,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기용(2009), 《한국어 격과 조사의 생성통사론》, 한국문화사
- 한국어학회 편(1999), 《국어의 격과 조사》, 월인
- 홍재성(1990), 건디다 구문의 기술을 위하여, 《한글》 208, 한글학회, 35-64.
- Anderson, J.M.(1994), Case, in Asher ed.(1994), 447-453.
- Asher, R.E. ed.(1994),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Peragamon

- Bach, Emmon & R.T. Harms eds.(1968), *Universals of Linguistic Theory*, Holt, Reinhart and Winston
- Baltin, M. & Chris Collins(2001),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yntactic Theory*, Blackwell
- Blake, Barry J.(1994), *Case*, CUP
- Brandner, E. & Heike Zinsmeister(2003), Introduction, in Brandner & Zinsmeister(2003), 1-22
- Brandner, E. & Heike Zinsmeister(2003) eds, *New Perspectives on Case Theory*, CSLI Publications
- Brecht R. D.& James S. Levine eds.(1986), *Case in Slavic*, Slavica Publisher.
- Butt, Miriam(2006), *Theories of Case*, CUP
- Chomsky, Noam(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 Chomsky, Noam(2001), Derivation by Phase, in Kenstowicz ed.(2001), 1-52.
- Eng, Mürvet(1991), The Semantics of Specificity, *LI* 22-1, 1-25.
- Fillmore, Charles(1968), The Case for Case, in Bach & Harms eds.(1968), 1-88.
- de Hoop, Helen & Andrej L. Malchukov(2008), Case-Marking Strategies, *LI* 39-4, 565-587.
- Johanson, Lars(2006), Two Approaches to specificity, in Kulikov, Leonid et.al. eds(2006), 225-247.
- Kenstowicz ed.(2001), *Ken Hale: A life in language*, MIT Press
- Kulikov, Leonid(2006), Case systems in diachronic perspective: A typological sketch, in Kulikov, Leonid et.al. eds(2006), 23-47.
- Kulikov, Leonid et.al. eds(2006) *Case, Valency and Transitivity*, Studies in Language Companion 77,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Lyons, J.(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UP
- Malchukof, Andrej & Andrew Spencer eds.(2009), *The Oxford Handbook of Case*, OUP
- Martin, Roger(2001), Null case and the Distribution of PRO, *LI* 32-1, pp. 141-166
- Mel'čuk, Igor A.(1986), Towards a Definition of Case, in Brecht & Levine(1986), 35-85.
- Næss, Åshild(2006), Case semantics and the agent-patient opposition, in Kulikov, Leonid et.al. eds(2006), 309-327.
- O'Grady, William(1991), *Categories and Case*,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Palmer, F. R.(1994), *Grammatical roles and relations*, CUP
- Spencer, A.(2006), Syntactic vs. morphological case: Implications for morphosyntax, in Kulikov, Leonid et.al. eds(2006), 3-21.
- de Swart, Peter(2006), Case markedness, in Kulikov, Leonid et.al. eds(2006), 249-267
- Ura, Hiroyuki(2001), Case, in Baltin & Collins(2001), 334-373
- Whaley, Lindsay J.(1997/2008), *Introduction to Typology*, 김기혁 역 언어 유형론, 소통
- Woolford, Ellen(2003), Burzio's Generalization, Markedness and Locality Constraints on Nominative Objects, in Brandner & Zinsmeister(2003)

[604-714 부산시 사하구 하단2동 840번지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 051-200-7031

E-mail: jhum@dau.ac.kr

투고 일자: 2011. 9. 26.

심사 일자: 2011. 11. 25.

게재 확정 일자: 2011. 11. 30.